

CEO 동정

# 경의선 선로상부 숲길 공원조성 공사 착공식



김광재 이사장은 10월 8일 서울 마포구 새창고개(백범교)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지역 국회의원 및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의선숲길 공원조성사업 2단계 구간' 착공식을 가졌다.

# 제2회 대한민국 지식大賞 우수상 수상

기획혁신본부(본부장 김영우)에 따르면 공단은 10월 17일 세계 200여 명의 석학과 글로벌 리더가 참석한 '세계 지식포럼'에서 지식혁신 성과를 인정받아 '제2회 대한민국 지식대상 우수상(안전행정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공단은 혁신적 리더십과 지원을 바탕으로 임직원들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학습 CoP(배움두레) 활동을 통해 수요와 편의를 고려한 효율적 설계 시공, 수익창출 및 자원 재활용, 고속철도건설부채 감소와 대외 신용등급 국내 최고 수준 유지, 하도급 관리강화,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으로 협력적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등 업무절차를 개선하고 고객만족과 협력사와의 상생협력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수요와 편의를 고려한 효율적 설계 시공**  
공단은 과거 광역역 천안아산역·오송역 등 KTX노선에 불필요한 부분선이 지나치게 많이 설치 등의 선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2011년 8월 김광재 이사장 취임 이후 각종 사업의 기본 계획을 재검토해 낭비를 줄이고 불필요한 시설물을 축소했으며 공법을 변경하고 자재도 바꿨다. 이러한 노력으로 신안산선 복선전철 역사 환기구 개선, 수송수요와 전동차 규격에 맞추어 승강장 폭과 터널 단면적을 축소하는 등 2011년 이후 2년간 1조7385억원을 아꼈다.

**□수익창출 및 자원 재활용**  
무단 경작과 폐기물 투기의 온상이었던 폐철로와 유휴부지는 경의선 교량 하부공간을 활용한 체육시설, 경춘선 유휴부지 전동시장, 영동선 스위치백 리프트 등 환경친화적 생활공간과 수익창출 모델로 재탄생했다.

또한 철도개량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임목폐기물, 폐침목, 레일 등은 철거하지 않고 퇴비, 레일바이크 자전거 도로 등으로 재활용하여 폐기물도 줄이고 예산까지 절감했다.

**□고속철도건설부채 감소와 대외 신용등급 국내 최고 수준 유지**  
절감한 사업비를 활용하여 2011년 처음으로 415억원의 부채를 상환했으며 지난해 929억원, 올해도 677억원을 갚을 계획이다. 2011년부터는 당기순손실도 줄여, 2010년 3200억원이었던 당기순손실은 2011년 1900억원, 지난해 900억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선로사용료 현실화를 통해 호남고속철도 및 수도권고속철도를 완전 개통하는 2016년엔 처음으로 2000억원이 넘는 당기순이익을 낼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지구노력과 사업비절감 및 금융비용 절감 등 철저한 재무관리를 통해 2012년에 국제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로부터 국내 비금융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국가 신용등급(Aa3)과 동일한 평가를 받았으며 현재 국내·외 신용등급 최고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등 협력적 기업 생태계 조성, 하도급 관리강화**  
아울러 '협력적 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협력과 소통의 허브역할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온라인 구매 입찰상담 창구'를 공공기관 최초로 구축해 중소기업체와의 신기술 인증제품(NEP) 우수조달 물품과

녹색제품 구매를 활성화하였고,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 의무화, '표준하도급계약서 부당특약' 관행 개선, 하도급 대금지급 및 노무비 지급일일 문자서비스 등 사회적 약자 보호와 불공정 행위 척결에도 기여하고 있다.

김광재 이사장은 "지식경영으로 내부는 물론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과 참여를 확산하고, 현장의 다양한 소리를 모아 국민의 입장에서 제도를 개선하는 등 그 동안 추진해온 지식혁신 활동이 대한민국 지식대상에서 우수상 수상이라는 성과로 이어져 매우 기쁘다"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공단 전 임직원은 더욱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업무추진을 통해 공공기관의 지식혁신을 선도함은 물론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건설로 국민께 보답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 부서관 칸막이 제거 위한 16개 협업과제 추진

- 소통·협력 통한 업무개선으로 국민들에게 고품질 철도 제공 -

기획혁신본부(본부장 김영우)는 소통과 협력을 통한 업무개선과 부서관 칸막이 제거, 신속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분야 간 16개의 협업과제를 도출하여 추진한다. 본부는 지난 9월 전 직원 설문조사를 통해 부서관 협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부서별 과제 선정 및 조정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협업과제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협업과제는 부서 간 역할분담으로 단기간에 해결이 가능한 '협력과제'와 부서 간 이해관계가 상충되거나 장기적 접근이 필요한 '전략과제'로 구분하여 각각 8개를 선별했다.

또한 이번에 도출된 과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를 위해 협업과제 학습CoP를 신설하고, 협업추진 장애요인이나 부서 간 갈등사항 발생 시에는 '협업조정회의' 등을 개최하여 협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경영성과자 관계자는 "부서관 소통·협력을 통한 업무개선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고품질의 철도를 적기 제공함으로써 국민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협업과제 현황〉

구 분	세 부 과 제
협력과제	• 공익신고 처리를 위한 관련부서 합동조사반 운영 • 연구·시공부서 공조를 통한 철도기술 국산화 촉진 • 보유자재 정보공유를 통한 재고자재 최소화 등
전략과제	• 호남고속철도 개통준비를 위한 분야별 협력체계 구축 • 시설점검·자산개발 등 폐선부지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 계량화된 철도건설공사 품질안전지수 개발 등

# 공단 지원 4개 기업 '생산성경영시스템 인증' 취득

- '중소기업 성장 희망사다리 구축' 일환으로 중소기업 지원 -

연구원(원장 최상영)에 따르면 철도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중소기업자 중 올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에스코알티에스, 원미디텍, 청진건설, 벤트코리아 등 4개사가 지난 9월 말에 전문심사기관인 한국생산성본부로부터 '생산성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했다.

'생산성경영시스템 인증' 제도는 중소기업이 경영진단, 컨설팅, 교육, 성과평가를 통해 경영상의 취약점을 개선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도록 돕는 제도로, 금융지원과 중소기업청의 지원시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단은 국정과제인 '중소기업 성장 희망사다리 구축'의 일환으로 올해 4개 업체를 선정하여 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와 각각 50%씩 지원했다.

연구원 측은 "중소기업이 '생산성경영시스템 인증'을 받음으로써 기업 생산성 향상은 물론 철도건설 품질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기획혁신본부(본부장 김영우)는 10월 10일부터 14일까지 용인시, 성남시, 강남구, 화성시에서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사업의 주요 내용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설명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주민설명회에서는 광역급행철도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에 따라 전반적인 사업 개요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생물서식지, 생태축, 수질환경, 대기질, 소음진동 등의 현황과 영향, 저감방안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지역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본부는 주민들이 쉽게 설명회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10월 1일부터 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를 주민설명회가 개최되는 지자체에 비치했다.

또한,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 지역주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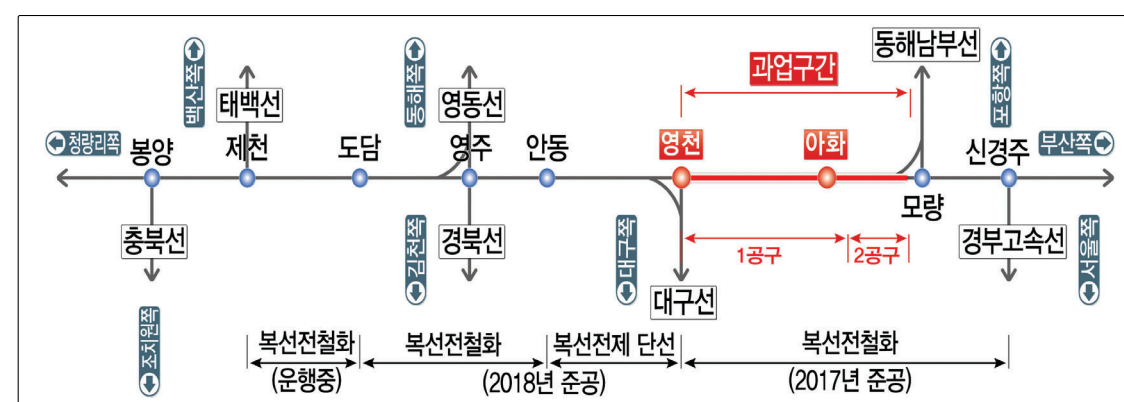
# 중앙선 영천~신경주 철도건설 기본설계 주민설명회 개최

건설본부(본부장 이종춘)는 '중앙선 영천~신경주 복선전철사업'의 기본설계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15일 경주시, 17일 영천시에서 개최했다.

주민설명회에서는 영천~신경주 철도건설 사업의 기본설계 내용을 주민들이 알기 쉽게 설명하고 지역주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으며, 설명회 결과는 설계에 반영하여 2014년 5월 실시설계를 완료, 2014년 말 착공하여 이용자 중심의 편리한 철도로 건설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영천~신경주 간 26km구간에 사업비 6808억원을 투입해 현재 단선 비전철로 운행 중인 구간을 시속 250km/h의 복선전철화로 추진하게 되며, 사업이 완공되면 청량리~영천~신경주간 운행시간이 현재 무궁화열차 5시간 16분(1일2회 운행)에서 1시간 52분(1일6회 운행)으로 3시간 24분 단축되며, 열차운행횟수도 현재 1일 39회에서 84회로 크게 늘어났다.

특히, 복선전철화를 통해 부산·울산·포항을 연결하는 동해남부선, 영남권 순환철도망을 형성하는 대구선(동대구~영천간) 및 경부고속철도 신경주역과 연결되어 사동팔달의 철도망을 구축하게 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 촉진 및 주민교통편의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몽골 철도정책 공무원 대상으로 국내연수 시행

- 한국철도의 선진기술 전수해 몽골 철도건설사업 참여 기대 -

시설사업본부(본부장 최성권)는 10월 13일부터 26일까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해외기술자 대상 국내초청 위탁연수사업으로, 몽골의 철도 정책과 건설 및 운영을 담당하는 관리자급 공무원 12명을 초청해 '몽골 철도정책수립' 과정의 연수를 시행한다.

이번 연수는 몽골의 철도정책 수립과 철도산업 발전을 위한 공무원의 역량강화 교육의 일환으로, 이론 강의와 국내 철도 현장 방문을 통한 현장 학습으로 구성되어 한국철도의 선진기술을 전수한다.

아울러 국내 산업현장 시찰과 문화체험을 포함하고 있어 한국의 발전상과 문화를 소개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해외철도사업처의 관계자는 "이번 연수를 통해 몽골의 철도분야 공무원과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몽골에서 발주되는 타바톨고이~사인산드~초이발산(1090km)간 광산개발과 연계한 철도사업 등 신규 철도건설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경부2단계 고속철도 선로전환기 정상화

- 전사적인 노력으로 사용 중지된 3개소 사용 재개 -

기술본부(본부장 임영록) 신호/통신처는 2011년 6월 이후 약 2년 여 이상 사용 중지했던 경부2단계 선로전환기 3개소를 각고의 노력 끝에 사용 재개하여 모든 선로전환기를 정상화했다.

신호통신처는 11월까지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점검·보수T/F팀(공단, 철도공사, 철도기술연구원 및 시공사, 제작사, 감리단)을 구성하여 최종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12월 중에 선로전환기 업무를 종결할 예정이다.

본부는 '기준과 원칙'을 무엇보다도 우선시한 김광재 이사장의 경영 방침 하에 경영회의 등을 통해 보완·조치 등 선로전환기 문제를 전사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신속하고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었다.

신호/통신처는 이번 선로전환기 정상화를 통해 그간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언론홍보를 적극적으로 시행했으며, 특단의 대책으로 향후 동일 시간 재발 방지를 위한 결의대회도 가졌다.

뿐만 아니라 오는 12월까지 진행되는 T/F팀 활동에서 보완이 필요한 유지보수매뉴얼을 명확히 하고, 모니터링 및 안전관리 활동을 철저히 시행할 계획이다.

(기술본부 김민성 기자)

